

1.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가치 → 국가교육회의 기형단장 김진경

-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교과·지식의 융합의 교육과정,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있다

why ↓

멀티미디어 발달, 지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

↓

능동적 사고가 위축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

- 한국의 인공지능 로봇 밀도는 세계 1위
 - 노동자 만명 당 600대 정도가 활용
 - 인공지능 자동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
 - 산업계에서 일반적인 학교교육에 관심이 없다
 - 갈수록 청년 실업이 심화된다
 - 임금을 통한 분배가 어려워짐 → 소득이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 되므로 기본소득 분배를 국가가 관여하게 됨.
 - 가치관과 사회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됨.
 - 삶 중심의 교육과정, 단위 학교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.

• 호모 중심 사이언스 (현재 중학생)

- 90년대 초 처음으로 교실붕괴, 왕따 등의 단어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음.
- 연식, 교복·두발 자유화로 자신의 몸에 표현하면서 신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됨.
-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교사와 학교 시스템과 충돌하게 됨.
-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사와 신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생을 비교하면 → 90년 이전에는 정신적 가치가 우선 되어 신체적 가치를 잘 교육함 (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함)
- 농경사회, 산업사회는 신체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 함 (인간의 노동력을 통제해야 하므로)
- 90년대 이후 지식기반사회는 정신적 가치보다 신체적 가치를 중시 함 → 지식기반사회에 학생의 변화를 교사가 따라가지 못할.

• 학생과 학교시스템의 충돌이 본격화

- IMF의 경제적, 사회적 어려움을 체험
- 자기 정체성의 모델이 될 역할이 없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
- 2000년대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 형성이 어렵다
- 수업중 집중하지 못하고 목표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남
- 현 시스템으로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없다
-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
- 산업사회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없다

2. 한국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과제

→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 장한업.

-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이고 다문화 사회이다

- 필요없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
-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을 길러주지 못함 (사회적 상호작용)
- 지식의 양을 줄여야 함.

•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(다양한 이웃과 조화롭게 사는 능력)

이 세계 36개국 중에서 35위로 최하위

- 외국인이 옆집으로 이사 온다면 5 이상이 반대함
- 같은 외국인의 차별이 심함 (백인에 비해 동남아인 설악)
- 현재 재외동포 118개국 743 만명으로 세계 6위
- 그럼에도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는 한국, 일본이다

• 다문화 사회의 도래

- 선진국이 되기 위한 성장통이다
- 동여촌 황폐화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있다
- 저출산으로 외국인은 증가할 것임
-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임
- 2030년에는 전 인구의 10% 정도가 외국인 → 사회적 혼란이 거듭될 것이다.

• 우리 모두가 다문화인으로 인식이 변해야

- 자기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
-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 (국민의 절반이 외국인일지, 결혼이민자 부는 양복, 모는 한복을 입는다) → 우리 사회는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다.
-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변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

• 현재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

- 일사적, 전시적이다
- 문화, 지식 교육에 치중
- 다문화 가정 자녀만 대상.

• 이중 언어 사용

-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
- 다문화 자녀, 부모를 활용하여 일반 학생의 언어교과를 실시하여 자긍심 고취

• 사회, 교육적 과제

- 이민자 가정 차이 존중
- 다문화 친화적 교육 여건 조성
- 학생, 교사, 학부모 인식 개선

3. 헌법과 교육 ⇒ 공주대학교 교수 권형돈

- 헌법의 기본틀
 - 정치적 질서의 기본틀
 - 정치적 지배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
 - 국가조직과 기본권 보장
-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 기본법이다
- 헌법의 기본원리
 - 민주주의 원리 → 국민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.
 - 법치국가 원리 → 다수에 의한 정치적 지배를 제한,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
 - 사회국가 원리 →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 복지를 배려하는 국가 활동
 - 평화국가 원리 → 조국의 평화적 통일
- 민주주의는 헌법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
 - 주권인식, 헌법 이해 교육, 공정한 경쟁, 결과 수용
 -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이 이루어져야 함.
 - 이러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교육.

4. 학교 리더십이란? ⇒ 경기도 교육연구원 원장 이범희

- 초심을 잃지 않으면 좋은 교사가 될 것이다
- 군에서 대통령 임명장을 가진 사람은 교장 밖에 없다
 - 장관, 교장의 임명장은 크기 와 모양이 같다
- 교실 등 공간의 재구조화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
- 교사들의 인식
 - 교장의 행복이 교사를 행복하게 한다는 명제에 교사의 90%가 아니라고 응답
 - 반대로 교사가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하다는 명제에는 교사의 90%가 예로 응답
 - 교사의 이중적 잣대
 - 교사는 발로 논리로, 요구와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, 치열한 실천으로 생활해야 한다
- 교장이란?
 -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
 - 모든 이를 잘 돌보고 애쓰는 사람
 - 모두가 함께 배우고 현재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
- 설득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질문으로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
 -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- 솔선수범 할 것
 - 여건을 마련 할 것 - 진실로 대할 것
 - 본질적 목표를 놓치지 말 것
 - 편 나누기를 하지 말 것
 -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것
- 20~30 대 젊은 교사의 인식
 - 정년까지 가지 않겠다 : 41%
 - 교사를 선택한 이유 : 안정적 삶 34%
 -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: 학부모 (39%), 학생 (24%), 관리자 (17%)
 - 스트레스 요인 : 책임감 (52%), 행정업무 (21%)
- 학교운영의 핵심원리가 실적주의, 물량주의, 형식주의,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 → 변화가 필요하다.
- 지도자는 가치와 배려를 위해 일부 구성원의 비질을 감수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.

5. 아동,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방안
⇒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권형철

- 아동권리: 적합한 환경과 교육기회 제공, 인격체로 존중
- 잘못된 아동관: 아동을 소유물, 무능한 존재로 인식
→ 타인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자라기 힘듦
-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→ 존재의 개념으로 가치를 존중해야 학대가 없어짐
- 아동의 4대 권리: 발달권, 보호권, 생존권, 참여권
- 아동의 나이 기준: 18세 미만
- 아동학대의 유형: 한 번 구겨진 마음의 상처는 펴지지 않는 사진처럼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.
- 아동학대의 유형: 성폭학대, 신체 학대, 정서 학대, 성적 학대
-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(2014. 9. 29) → 아동학대 인지하면 즉시 신고 → 자체 해결은 안돼. 축소
- 아동학대는 지속성, 반복성 여부 → 법적 처벌
- 정서 학대: 직접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부부 싸움 등 가정불화로 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학대로 인정됨
- 훈육의 법칙
 - 아이와 마음을 인정 (내가 정한대로 행동하길 바라지 마세요)
 - 기다려라 (감정은 스스로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조절이 가능)
 - 강하고 세게 해야 머리가 고쳐진다 생각하지 마라
 -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라.
- 훈육이 학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?
 - 자식, 학생을 손윗처럼 대하라.
 - 아이를 통제하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
 - 잘못은 단호히 바로 잡되 굴복시키려 하지 말라
 - 아이를 대할 때 인내심을 가져라
 - 연성이 높아지면 부모의 분노부터 가라 앉혀라.
- 아동학대는 공소 시효가 없다.

6. 미래사회 교육의 과제 → 충남대 교수 오기영

-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이상인 나라의 특징
→ 자유로운 상상력, 즐기는 여유
- 위기 →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로 역사는 위험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
- 대한민국 3만 달러의 저주
 - 중소기업의 몰락
 - 일본은 우리보다 입음이 싸고 중추의 집중력이 우리 수준을 따라옴
 - 중국, 미국의 보호무역주의
- 방탄소년단에서 해법은?
 - 전 세계 랭크 과의 공감 → 새로운 변화를 창출
 - 영화 같은 뮤직 비디오 → 차별화된 역량
 - 젊은 층의 고지, 포소령 있는 가사 →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
- 2035년을 배경으로 만든 ~~영화~~ 영화 아이 로봇, AI 면접관 (일본), 구글의 기술 혁신 → 10년 후에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가? → 새로운 과제.
- 현재 교육을 받았던 역량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다.
- 사라지는 일자리의 특징
 - 경쟁력 상실로 사라지는 직업 (물새) 대신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 (디지털 도어들)가 더 많이 생김 → 이러한 현상에 맞춘 →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 밑에도 대책이 없다
- 황사 발원지 → 반대에도 나무심기를 시도 → 처음에는 대부분 고사 → 새로운 방법, 경험 축적 → 대부분 생존
 - 교육은 다양한 시도가 필요
 -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
- 미래에는 정해진 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평가로
 - 정해진 답을 찾는 평가 (한국 공무원 시험) 전환됨
 - 일본 대졸입시 → 1차 서술형, 2차 논술 등 → 수업이 바뀜
 - 지구에 생명체가 없다면? 의 주제로 1학기 수업 진행
→ 학생끼리 협력, 공유하며 수업 진행 → 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습득
- 스스로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됨 → 학생부 종합 전형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→ 교실수업이 변화
- 잘하는 것 (직업), 좋아하는 것 (흥미), 할 수 있는 것 (잠재력)에 대한 기록을 제공해야 함 →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함.

7. 저출산, 고령화 시대의 교육적 과제 →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원

- 저출산의 원인 →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다, 네가 낳자국이 앞으로 더욱 힘들게 살 것이다 → 근본적 이유
- 2017년 한국의 고령화율 14% (65세 이상의 비율)
 - 7% 이상 : 고령화 사회
 - 14% 이상 : 고령 사회
 - 20% 이상 : 초고령 사회 <
 - 2050년 우리의 고령화율은 38% 예상 → 가장 큰 야망 급격한 저출산
 - 우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될
 - 2050년 고령화 비율 1위 전망
- 1975년 ~ 2015년 출산율 변화
 - 1975년 출산율 → 3.5명
 - 2015년 가장 낮은 출산율 →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 - 자녀의 양육, 교육비 부담 60.2%
 - 소득, 고용 불안정 23.9%
 - 가치관의 변화 7.5%
-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
 -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, 경제적 원인 해소
 - 출생,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
 - 교육, 보육의 환경 개선
 - 일, 가정 양립의 사회적 제도 해는
 -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음 → 사교육비, 일,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 ~~문제~~ → 온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가능
- 저출산,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→ 이에 대응하는 경제사회문화 제도가 필요
- 교육적 과제
 - 혼인,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→ 혼인,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두려움은 가능하지 않음 → 처리해 주는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
 - 양성 평등 교육 → 출산율, 여성 고용율을 높이는 데 중요
 - 직장과 사회에서 모성 보호 중요성 교육
 - 복지 정책의 중요성 교육
 - 다문화 가정,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

8. 회복적 생활교육 방법 → 회복적 생활교육 센터 대표 박숙영

- 청소년 자살의 요인
 - 성적, 진학에 관련된 스트레스 : 39.3%
 - 경제적 어려움 : 19.5%
 - 가정 불화 : 10.5%
 - 청소년 자살의 예방
 - 올바른 자기 정체성 확립 → 존재의 이유, 생명의 존엄성
 - 교육환경 개선 → 가정, 학교 사회의 협력적 관계 유지
 - 새로운 종류의 패러다임
 - 생활지도의 문제점 → ~~생활지도가~~ 생활지도가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, 권위에 의존한 생활지도
 - 처벌 중심의 생활지도 → 강압과 법은 한계가 있다
 - 관계가 단절되고 공동체 정신을 상실한 교육
 -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전환
 - 규제와 통제에 초점 →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적 접근
 - 회복적 생활교육의 개념
 - 존중과 자발적 책임
 -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
 - 생활지도와 생활교육의 비교

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어떤 법을 위반 했는가? | → 어떤 피해가 발생 했는가? |
| 누가 범인 인가? |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? |
| 어떤 처벌이 합당한가? | 피해자의 요구 무엇인가? |
 -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
 - 배움을 위한 안전한 공간 만들기
 - 관계 중심 지향하기
 - 공동체 참여를 이끌기
 - 상호 존중 하기
 - 힘을 공유하는 공동체 세우기
 -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기
 -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
 - 현재 관계적 공격(폭력)의 유형
 - 거짓말이나 무시하기
 - 상처 입힐 목적으로 조작하여 견제하기
 - 집단에서 제외시켜 보복하기
 - 인간질 하여 우정 관계 조작하기
 - 협박하기, 나쁜 소문 퍼뜨리기
 - 회복적 대안 도입
 - 가해자, 피해자 대화 모임 (가족집단치료)
 - 회복적 써클, 문제 해결 써클 이용
- 회복적 대안 필요
- 도난 사건 발생시 해결 방법을 원인으로 도의 → 이행률이 높아짐